짜릿한 설욕전…광양제철고 축구 정상 올랐다

2년만에 결승 맞대결
영생고에 1-0 승리
미드필더 박우진 MVP

프로축구 전남 드래곤즈의 18세 이하(U-18) 팀인 광양제철고가 28일 남해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42회 대한축구협회장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결승에서 전북 현대 U-18 팀 영생고를 꺾고 정상에 올랐다. 사진은 우승을 차지한 광양제철고 선수단. /연합뉴스

전남드래곤즈 U-18 광양제철고가 전북현대 U-18 전주영생고를 꺾고 제42회 대한축구협회장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우승 트로피를 차지했다.

광양제철고는 지난 28일 남해공설운동장에서 열린 대회 결승전에서 후반 25분 터진 문승민의 결승골로 1-0 우승을 차지했다.

K리그 산하 22개 유소년팀이 출전하는 대회에서 광양제철고는 2년 만에 설욕에 성공했다.

광양제철고는 지난 2019년 대회 결승에서 영생고에게 1-2로 지면서 아쉬움을 삼켰다. 그리고 다시 만난 영생고를 상대로 앞선 패배를 갚고 왕좌에 올랐다.

이와 함께 광양제철고는 2015년 U-18 챔피언십과 백운기 우승 이후 6년 만에 전국대회 우승에도 성공했다.

광양제철고가 초반부터 박시언과 문승민을 앞세워 영생고를 압박했다. 김승우와 이동현은 측면을 흔들면서 전반 분위기를 주도했다.

그리고 전반 36분 페널티 박스 바로 앞에서 프리킥 상황을 만들며 좋은 기회를 맞았다. 앞선 준결승전에서 프리킥골을 장식했던 이경헌이 키커로 나섰지만 아쉽게 골대를 비켜났다.

후반 영생고의 공세가 전개됐지만 광양제철고가 골로 분위기를 뒤집었다.

후반 25분 코너킥 상황에서 김승우에게 공을 받은 문승민이 전북 골망을 흔들었다.

이후 광양제철고는 수비라인을 강화하면서 봉쇄에 나섰고, 1점의 리드를 지키면서 우승을 이뤘다.

우승을 지휘하며 최우수지도자상을 받은 광양제철고 김현수 감독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선수들의 끈질긴 승부와 투혼이 돋보였다. 예선전에서 조2위로 올라와 12강, 8강에서 위기를 잘 극복하고 준결승과 결승에서 무실점으로 승리할 수 있어서 특히 더욱 기쁘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팀의 주장으로 대회 최우수상 주인공이 된 박우진도 "대회 준비부터 결승전까지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열심히 했는데 우승을 해서 너무 기쁘고, 전남 U-18이 원팀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다. 최우수선수상 받은 건 동료들이 잘 도와주고 힘이 되어줬기에 제가 팀을 대표해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신동근 코치가 우수지도자상을 받았고, 조은수가 베스트영플레이어상의 주인공이 됐다. 박시언과 이진우는 각각 공격상과 골키퍼상을 차지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전남도청 양연수 스쿼시 전국선수권 우승

전북연맹 문혜연 3-0 완파
올 시즌 두번째 금메달
같은 팀 박은옥은 동메달

양연수(전남도청)가 회장배 대회에서 올 시즌 두 번째 정상에 올랐다.

양연수는 최근 전북에서 개최된 제15회 회장배 전국 스쿼시 선수권대회 여일부 결승에서 문혜연(전북연맹)을 3-0으로 완파하고 1위에 올랐다.

8강전에서 엄화영(인천시체육회)을 3-1로 누르고 준결승에 진출한 양연수는 허민경(경남체육회)을 3-2로 꺾고 결승에 올랐다.

힘겹게 결승에 오른 양연수는 결승에서 승부를 싱겁게 마무리했다. 문혜연을 11-7, 11-6, 11-6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양연수는 이번 대회를 포함해 올 시즌 두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는 지난 4월 대한체육회장배에서 우승했다.

같은 팀 박은옥은 이번 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박은옥은 8강에서 배찬미(광주시체육회)를 3-2로 이기고 4강에 진출했지만 문혜연에게 1-3으로 패하며 동메달에 만족했다.

김영재 전남도청 스쿼시 감독은 "이번 대회도 스포츠과학센터의 현장지원을 통해 선수들의 컨디셔닝에 많은 도움이 돼 두 선수 모두 입상하게 됐다"며 "올해 전국체전 우승을 향해 더욱 더 굵은 땀방울을 흘리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회장배 전국 스쿼시대회에서 우승한 양연수(왼쪽)와 김영재 전남도청 감독. 〈전남도 체육회 제공〉

광주·전남 체육인 5명 스포츠클럽 유공자 표창

홍성삼

류창원

공갑석

최공집

최미옥

광주·전남 체육인 5명이 2020년도 스포츠클럽 유공자 표창을 받는다.

30일 광주시체육회와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홍성삼 광주거점스포츠클럽 사무국장과 류창원 광주서구스포츠클럽 사무국장이 2020 스포츠클럽 유공자 표창(스포츠클럽 운영관계자 부문)에서 상을 받게됐다.

홍 사무국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홈트레이닝 동영상을 제작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지역아동센터 및 사회복지법인 용진원 등지에서 공공스포츠 체육모델 확산을 위해 재능기부 활동을 했다. 류 사무국장은 지역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 커뮤니티 행사와 대회를 개최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우수선수 발굴 등에도 힘썼다.

전남에서는 공갑석 도체육회 생활체육부장, 최공집 세한스포츠클럽 사무국장(세한대 교수), 최미옥 강진스포츠클럽 사무국장 등 3명이 상을 받는다.

공 생활체육부장은 전남도의 스포츠클럽 활성화와 발전에 기여했다. 최 사무국장은 세한스포츠클럽의 활성화와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공헌했다. 최미옥 강진스포츠클럽 사무국장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회원 확보에 노력하는 등 클럽 발전에 이바지했다.

2020년도 스포츠클럽 유공자 표창은 스포츠클럽 발전에 기여한 자를 발굴하고 유공자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해 수여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호르몬 논란' 세메냐, 종목 바꿔 5000m 도전

주 종목 육상 800m 호르몬 기준치 넘어 도쿄올림픽 출전 못해

'남성 호르몬 수치'를 놓고 세계육상연맹과 법정 공방을 벌이는 캐스터 세메냐(30·남아프리카공화국)가 5000m로 종목을 바꿔 도쿄올림픽 출전에 도전한다.

유로스포츠는 28일(한국시간) "세메냐가 29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리는 국내육상대회 5000m 경기에 출전해 도쿄올림픽 기준 기록 통과를 노린다"고 밝혔다.

세메냐는 육상 여자 800m에서 올림픽 금메달 2개(2012년 런던·2016년 리우데자네이루)와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 3개(2009년 베를린·2011년 대구·2017년 런던)를 수확했다.

하지만, 도쿄올림픽에서는 주 종목 800m에 출전할 수 없다.

세계육상연맹은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은 여자 선수가 400m, 400m 허들, 800m, 1500m, 1마일(1.62㎞) 경기에 나서려면 약물 투여 등의 조처로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5nmol/L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규정했다.

일반 여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0.12~1.79nmol/L이다. 남성의 수치는 7.7~29.4nmol/L이다.

공개한 적은 없지만, 많은 전문가가 세메냐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7~10nmol/L로 예상한다.

세메냐는 약물 투여 등을 거부했고, 스포츠중재재판소(CAS)와 스위스 연방법원에 세계육상연맹을 제소했다. CAS와 스위스 연방법원 모두 세계육상연맹의 손을 들었다.

세메냐는 유럽인권재판소로 무대를 옮겨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도쿄올림픽 개막 전에는 재판이 끝나지 않는다.

세메냐는 200m에 도전했으나, 세계 수준과 격차를 확인한 뒤 포기했다.

남성 호르몬 수치를 낮추지 않고도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종목 중 세메냐가 새롭게 택한 건 5000m다. 세메냐는 지난달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리토리아에서 치른 5000m 경기에서 15분52초28로 우승했다.

그러나 도쿄올림픽 기준기록 15분10초00과는 42초 이상 차이 난다. 많은 전문가가 세메냐의 5000m 올림픽 기준 기록 통과를 회의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코비치 ATP 투어 우승
베오그라드오픈 테니스

노바크 조코비치(1위·세르비아·사진)가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베오그라드오픈(총상금 51만1000 유로) 단식 우승을 차지했다.

조코비치는 30일(한국시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끝난 대회 마지막 날 단식 결승에서 알렉스 몰찬(255위·슬로바키아)을 2-0(6-4 6-3)으로 물리쳤다.

2월 호주오픈에 이어 올해 두 번째 투어 이상급 대회 정상에 오른 조코비치는 우승 상금 7만8795 유로(약 1억원)를 받았다.

조코비치가 세르비아에서 열린 ATP 투어 대회 단식에서 우승한 것은 2009년과 2011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탈리아 파르마에서 열린 ATP 투어 에밀리아로마냐오픈(총상금 48만 유로) 단식에서는 서배스천 코르다(63위·미국)가 우승했다.

코르다는 결승에서 마르코 체키나토(104위·이탈리아)를 2-0(6-2 6-4)으로 꺾고 우승 상금 4만7080 유로, 한국 돈으로 6400만원 정도를 받았다.

코르다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제시카, 넬리 코르다 자매의 남동생이다.

이들 남매의 아버지 페트르 코르다(체코)는 1998년 호주오픈 테니스 단식 챔피언을 지낸 인물이다.

제시카 코르다는 LPGA 투어에서 6번 우승했고, 넬리는 네 차례 우승 경력이 있다.

2000년생 서배스천은 이번에 처음으로 ATP 투어 대회 단식 정상에 올랐다. /연합뉴스

장하나 KLPGA 투어 첫
통산 상금 50억원 돌파

장하나(29)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사상 최초로 통산 상금 50억원을 돌파했다.

장하나는 30일 경기도 이천 사우스스프링스 컨트리클럽(파72·6464야드)에서 끝난 KLPGA 투어 제9회 E1 채리티오픈(총상금 8억원)에서 최종합계 15언더파 201타로 공동 3위에 올랐다.

이 대회 전까지 KLPGA 정규 및 하부 투어에서 통산 49억5388만 9379원의 상금을 벌었던 장하나는 공동 3위 상금 5200만원을 보태 통산 상금을 50억 588만 9379원으로 늘렸다.

KLPGA 투어 사상 통산 상금 50억원 돌파는 장하나가 최초다.

장하나에 이어서는 현재 미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로 진출한 여자 골프 세계 랭킹 1위 고진영(26)이 33억 6246만원으로 통산 상금 부문 2위를 달리고 있다.

장하나는 정규 투어에서만 49억 9061만원을 벌어 곧 정규 투어에서만 상금 50억원 돌파도 눈앞에 뒀다.

장하나는 정규 투어 180개 대회에서 49억 9061만원, 2부 투어는 15개 대회에서 1527만 9333원의 수입을 올렸다.

KLPGA 투어 통산 13승이 있는 장하나는 미국 LPGA 투어에서도 5승을 거둔 한국 여자 골프의 간판급 선수 중 한 명이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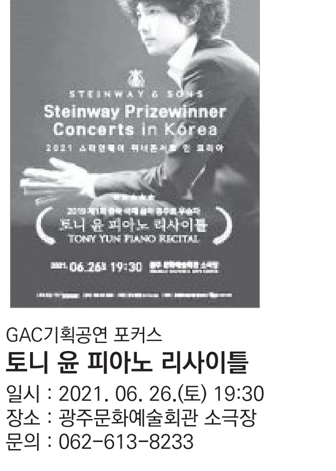
즐거운 문화 산책

LOTTE CINEMA I 충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2관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3관	파이프라인
4관	크루엘라, 파이프라인
5관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링: 더 라스트 챕터
6관	크루엘라
9관	크루엘라, 보이저스, 애플
7관 씨네커플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파이프라인, 비와 당신의 이야기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8관 씨네커플	도라에몽: 스탠바이미 2 명탐정 코난: 비색의 탄환, 내일의 기억 링: 더 라스트 챕터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공연 포커스
토니 윤 피아노 리사이틀
일시 : 2021. 06. 26.(토) 19:3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3

2021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뮤지컬 〈캔터빌의 유령〉
일시 : 2021.07.10.(토)~11.(일) 토 19:30, 일 15: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7